

한국타이어, “중국 1위 노린다”

2010년까지 2억5000만달러 투자 생산능력 2000만개로 확장

한국타이어는 중국에 타이어 2000만개의 생산설비를 갖춰 중국 최대 타이어 메이커로 올라서기로 결정했다.

한국타이어는 5월14일 중국 저장성 가흥공장에서 한영길 중국본부장과 중국 저장성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공장 준공 3주년 기념식을 갖고 [중국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한국타이어는 1999년 5월 중국에 공장을 건설해 처음 진출한 이래 2001년 매출 2184억원, 순이익 80억원을 올렸으며 현지 생산량은 연간 755만개로 2위이고 시장점유율은 27.4%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중장기 전략에서 앞으로 시장점유율을 35%로 끌어올리고 연간 2000만개 생산설비를 갖추는 한편, 중국 3대 자동차 메이커에 타이어를 대량 공급하고 중국 전지역을 연결하는 대규모 유통망을 구축해 중국 1위 메이커로 부상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수익성 낮은 일반타이어 생산은 비용이 낮은 중국 현지로 옮기고 국내에서는 고부가가치의 고성능(UHP) 타이어를 생산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4년까지 1억달러를 들여 연간 1000만개 생산설비를 갖춘 뒤 2010년까지 1억5000달러를 더 투자해 2000만개로 생산시설을 늘림으로써 2004년 3600억원, 2010년에는 70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한국타이어는 장쑤공장 생산라인도 2004년까지 6000만달러를 투입해 25만개로 증설하기로 하고 4월 기공식을 가졌다.

이와 함께 중국 내수판매 확대를 위해 6개 도시를 위주로 중국 전지역을 연결하는 유통망을 갖추고 광고나 후원, 스포츠마케팅 등을 강화,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국타이어 중국공장의 2002년 목표는 매출 2420억원, 순이익 150억원이다.

< Chemical Daily News 2002/ 05/ 16 >